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단 2009년 제1차 회의(2009.1.7)



1월 7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1024호에서 해외 및 북한 의료선교단 2009년 1차 회의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8년도 3명(엥크토야, 우린, 갈랑다 오크)의 몽골 아이의 치료와 도움을 받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2009년도 몽골 다르항에서의 봉사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일정, 단원 모집, 참가비, 단원 규모 등)과 현지답사, 단원 피정 및 발대식, 약품·간호 물품·일반 물품 기증 받기, 물품 운송 등을 논의하였다.

대북의료지원 TFT 2009년 제1차 회의(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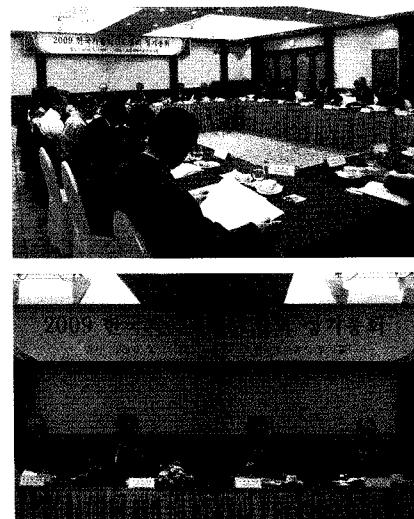
2009년 1월 13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1023호에서 대북의료지원 TFT 2009년 제 1차 회의가 팀원과 자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의료협회 산하에 속한 독립적인 명칭과 비전을 정립하여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2008

년 사업으로서 2009년 3월까지 지원하는 물품(소모품, 시약 등)과 기초 장비를 리스트화하여 준비해서 검사실이 완공되기까지 현지 창고에 저장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200병상 정도의 기준으로 중소형 장비를 준비하여 매뉴얼로 기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에 관하여 팀원들이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여 차기 TFT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협회 사업은 강남군병원으로 확정하여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특화하여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기총회(2009.2.11)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정기총회가 2월 11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3개의 직능단체장과 회원병원대표 54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및 2009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심의와 승인이 있었으며, 가톨릭병원협회 총회가 이어졌다.

제6차 가정간호분과위원회 개최(2.20)

협회는 제6차 가정간호 분과위원회를 2월 20일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병원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회원병원 중 가정간호사업소가 있는 16개 기관 중 10개 기관 16명의 가정간호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가정간호 활성화 방안 및 가정간호 계속프로그램 소개’(김혜영 강남성모병원)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견학, 그리고 ‘각 병원별 실적보고 및 2009년 가정간호 중점 전략 나눔’이 있었다.

그리고 임원진 선출에서는 제2대 가정간호분과위원장에 정현숙 수녀(강남성모병원 가정간호 팀장)가 부위원장은 성미순(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가정간호 팀장)선생이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전국교구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박장상 교수)는 전국교구 회장단회의를 2008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최영식 지도신부와 중앙의 회장단 및 6개교구 회장단이 참석하였으며, 각 교구별 2008년도 의사회 활동 보고가 있었다.

최영식 신부는 어려운 시기에 가톨릭의료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해외의료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41차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피정

2009년 3월 28일에서 29일에는 제41차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총회 및 피정이 대구대교구 가톨릭의사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112명이 참석하여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46회 전국이사회와 피정을 개최하였다.

전국이사회에서는 2009년 8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부터 3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기념 행사와 30주년 기념사를 발간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예산 포함)을 논의하였으며, CICIAMS 세계대회 참석 건 및 북한 종합검사·검진센터 기공식 참석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31회 전국대의원총회에서는 2008년 사업 보고 및 결산과 200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이 있었으며, 작은형제회 지정호 신부의 ‘신앙의 터전인 가정’ 및 오수록 수사의 ‘봉사의 정신’ 그리고 미사 강론에서 뜻 깊은 강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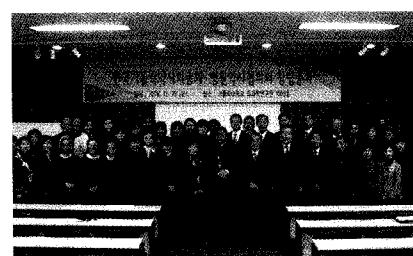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지(vol.36) 발간
전국에서 활동하는 가톨릭간호사들의 참여로 1년에 1회 민들어지는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지가 2009년 1월에 발행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 제46회 전국이사회(2009년 제1회) 및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는 2009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중앙이사 15명과 전국 13개 교구의 대의원, 총

12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1003호실에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주례로 창립미사와 정기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에는 병원에서 활동하는 약사 70여 명이 참석해 조규만 주교의 ‘우리의 기다림(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의료 현장에서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또 2009년도 사업 계획으로 보건 당국·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직약사협의회’와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약사들을 위한 ‘산업약사협의회’ 등 직능별협의회를 순차적으로 조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톨릭 신자 약사로서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약사회

정기총회 및 병원약사 협의회 창립미사 및 특강

한국가톨릭약사회(회장 이강주)는 전국 병원 천주교 신자 약사들을 중심으로 병원약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